'뉴 대림' DL, 돈의문 시대 개막…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

건설사 경영전략

❶ DL E&C

대림산업, 'DL'로 새해 새 출발
신임 대표이사에 마창민 선임
신사업 발굴·디벨로퍼 역량 강화
올해 31곳서 1.9만여 가구 공급

마창민 DL E&C 대표이사

DL사옥 D타워 돈의문 /DL E&C

신축년 새해 시작과 함께 DL E&C(DL이앤씨) 돈의문 시대가 개막됐다. DL이앤씨는 기존 종로구 수송동 대림빌딩에서 서울 종로구 통일로 134에 위치한 D타워 돈의문 빌딩으로 사옥 이전을 마치고 마창민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새 출발을 알렸다.

◆DL이앤씨 돈의문 시대 개막

DL이앤씨의 전신인 대림산업은 DL홀딩스, 건설사업회사인 DL이앤씨(DL E&C), 석유화학 회사인 DL케미칼(DL Chemical)의 지주사 체제로 출범한다.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크게 건설과 석유화학을 양 축으로 하는 지배구조다. 각 사업별 경쟁력과 역량에 최적화된 디벨로퍼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주회사인 DL은 계열사별 독자적인 성장전략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건설회사인 DL이앤씨는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혁신하고, 수주 중심의 전통적 건설사에서 탈피해 디벨로퍼 중심의 토털 솔루션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DL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D타워 돈의문 빌딩은 지하 7층~지상 26층, 연면적 8만6224㎡ 규모로 지어졌다. 수송동 대림빌딩과 D타워 광화문에서 근무하던 DL이앤씨 임직원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던 DL케미칼, DL에너지 등 계열사 6곳의 임직원 약 3000여명이 D타워 돈의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1939년 인천 부평역 앞 '부림상회'로 창업한 대림산업은 지난 81년간 서울 용산구 동자동, 광화문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혁신과 성장을 거듭했다.

DL은 그동안 건설과 석유화학 사업이 독립적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갈 최적화된 시점을 모색해 왔다. 기업분할을 통해 산업별 특성에 맞는 개별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 재편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마창민 대표이사 선임…올 1만9586가구 공급

DL이앤씨의 수장으로는 마창민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마 대표는 지난달 4일 주주총회를 통해 DL이엔씨의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며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됐다. 마 대표는 글로벌 마케팅 전략기획 전문가로서 DL이앤씨의 신사업과 신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디벨로퍼 역량 고도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마 대표는 신년사에서 "과거의 성공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내려고 하지 않겠다"라며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열정으로 남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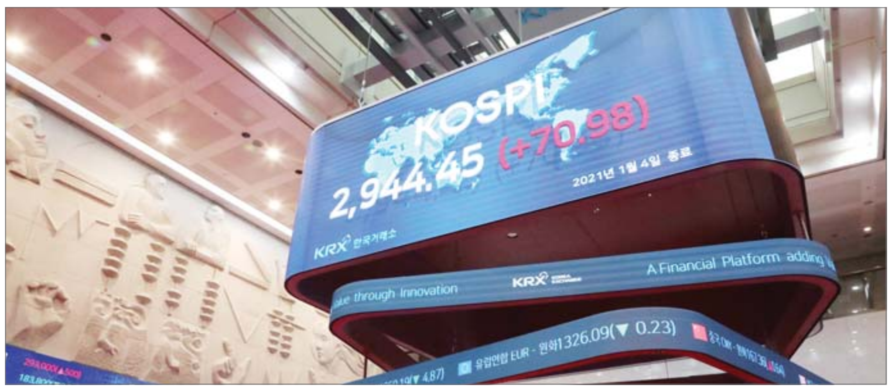
그는 끝으로 "결과 만큼 과정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즐거운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결과가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DL이앤씨는 올해 31개 사업지에서 1만9586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1만1657가구다. 이달에는 ▲가평대곡(472가구) ▲인천영종3차(1409가구) 등에서 주택을 공급하며 월별로는 ▲3월(2119가구) ▲4월(593가구) ▲5월(3373가구) ▲6월(418가구) ▲7월(931가구) ▲8월(764가구) ▲9월(803가구) ▲10월(2761가구) ▲11월(620가구) ▲12월(581가구) 등이다. 나머지 4752가구는 분양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새해 2900 돌파… 증시 '1월 효과' 기대감

코스피 사상 첫 3000선 초읽기
개인 투자자들 1조 넘게 순매수
1분기 단기조정 후 2차 상승 유력



코스피지수는 올해 개장일인 4일에 이어 5일에도 사상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면서 2021년 증시 상승 기대감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거래소

국내 증시가 새해 첫날부터 날아 올랐다. 지난 4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70.98포인트(2.47%) 상승한 2944.45에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이 1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5일 소폭 조정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코스피지수가 9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 글로벌 정책 기조가 완화적인 점, 유동성이 풍부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내 '1월 효과' 패턴…소형주 강세·1월 주가 상승

대신증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관찰되는 '1월 효과(january effect)'는 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경우와 1월에 주가가 오른 해엔 연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경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효과는 다른 달에 비해 1월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1월의 대형주 대비 소형주 우위 현상은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에서 뚜렷하게 확인됐다. 2001~2020년 총 240개월 중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105개월로 43.8%에 불과했다. 반면 1월에는 20개월 중 13개월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65.0%의 승률을 기록했다.

또 코스피 소형주와 코스닥 모두 직전 12월에 주가가 하락한 다음 1월에는 대형주 수익률을 상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피 소형주와 코스닥은 각각 81.8%(11회 중 9회), 77.8%(9회 중 7회)의 확률로 대형주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12월에 코스피 소형주와 코스닥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소형주 강세 확률은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증시에서 나타나는 '1월 효과'는 1월에 주가가 오를 경우 그 해 연간 수익률도 플러스(+)를 기록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1981년 이후 지난해까지 1월에 코스피지수가 상승한 경우 연간으로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80%였다"며 "반면 1월에 지수가 하락했을 땐 그 확률이 52.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증시의 1월 효과는 지수 상승 여부보다는 소형주와 대형주의 상대 강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느 때보다 높은 만큼 1월 주가 향방을 지켜보는 의미가 더욱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상승' 가능성↑…단기 가격조정 여부 '관건'

주목할 부분은 코스피가 지난해 마지막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9주 연속 상승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이후 9주 동안 코스피의 누적 수익률은 24.14%로 과거 9번의 평균(22.05%)과 유사한 점으로 볼 때 과도한 상승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연속 상승 이후 단기 가격조정 여부에 따라 중장기 상승 추세 지속 혹은 하락 추세 반전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코스피는 대부분 연속 상승 후에 2~5주 동안 10%에서 최대 20%까지 가격 조정이 있었다. 그런 다음 2차 강세가 전개되며 중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는 1분기 중 단기 조정 이후 2차 상승 국면 진입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글로벌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와 유동성 동력이 유효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기업실적 회복 및 모멘텀 강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과 경기회복 속도에 따른 투자심리와 수급 상황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코스피 상승 추세는 견고해지고 있으며, 단기 조정 및 변동성 확대가 있다면 비중확대 기회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염재인 기자 yji1208@

대우건설 '흑석 11구역' 수주 성공

단지명 '써밋 더힐' 제안
이주비 추가 등 큰 호응

대우건설이 지난 4일 서울 동작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올해 첫 대형 사업지에서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하며 2021년 수주 청신호를 밝혔다.

흑석11구역은 최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반포지역과 맞닿은 준강남권 입지로 흑석뉴타운 내에서도 핵심으로 손꼽히는 사업장이다.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은 8만9317.5㎡의 부지에 총 1509가구, 지하5층~지상16층 아파트 25개동과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4501억원(VAT 제외) 규모이다. 전체 1509가구 중 조합원분 699가구와 임대분 257가구를 제외한 55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3가구 ▲49㎡ 109가구 ▲59㎡ 560가구 ▲74㎡ 126가구 ▲84㎡ 541가구 ▲114㎡ 58가구 ▲150㎡ 2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흑석11구역은 단지 서측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과 단지 동측에 4호선 동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올림픽대로와 동작대교를 통해 서울 내·외곽 진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도보로 반포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지 남측에 서달산(국립현충원)이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흑석초·중대부초·중대부중·중앙대·숭실대·신설고교(흑석9구역 내 건립예정) 등이 있으며 하나로마트·중앙대학교병원·고속터미널·신세계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을 '써밋 더힐'로 제안하며,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적용했다.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세대내 투입)·안티 코로나시스템(현관 에어샤워, 헤파필터 적용 환기시스템 등)·스마트시스템·컨시어지 서비스 등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명품특화 시스템과 크리스탈 게이트(단지 문주)·웰컴 라운지(동 출입구)·스카이 워크(옥탑 산책길)·7가지 테마의 커뮤니티 시설 등 기존 조합 설계안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특화 설계안을 적용해 단지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특화 설계안 외에도 이주비 추가지원·분양방식 선택제(선분양, 후분양)·공사비 기성불 지급·계약이행보증(현금 250억) 설정 등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안해 조합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연우 기자

'써밋더힐' 조감도. /대우건설